

“데뷔작 ‘봄밤’ 연기인생에 밑바탕”

배우 임현수

MBC TV 수목극 ‘봄밤’ 속 인물들은 모두 주변에서 한 번쯤 만나볼 법한 캐릭터들이었지만 그중에서도 최현수는 특히 그랬다.

정인(한지민 분)을 놓고 싸우는 오랜 친구 지호(정해인)와 선배 기석(김준한) 사이에서 머리를 싸맨 최현수 역 배우 임현수(26)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가 필요했다.

최근 광화문에서 만난 임현수는 ‘봄밤’이 데뷔작이라 더 어려웠고, 그만큼 배운 것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봄밤’을 연출한) 안판석 PD님 오디션을 보고 나서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만 생각했는데 합격했어요. 게다가 배역 이름이 현수더라고요. 운명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하.”

임현수는 “론테이크 연출이 특징인 안 PD님을 만나 감정선을 살리면서 하고 싶은 연기를 실컷 했다”라며 “또 연기할 때는 늘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크게 느꼈다. ‘봄밤’이 특히 진심을 담으면 티가 많이 나는 장르여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연기 인생에 큰 밑바탕이 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수와 지호, 기석의 삼각관계는 현실적으로 있을 법한 구도라 최현수를 임현수로 끌어와서 많이 상상하고 생각했다”라며 “현수가 뒷집 앞에서 기석한테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은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 연기했다”라고 강조했다.

중학생 때부터 배우를 꿈꿨지만 부모 뜻에 따라 지질학을 전공하고, 해병대까지 다녀온 그는 지난해, 더 늦기 전에 꿈의 꿈을 꾀했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이 가장 큰 지원군이라고.

군대에서 MBC TV 드라마 ‘불야성’ 속 정해인을 보며 롤모델로 삼았다는 임현수는 결국 정해인이 있는 FNC엔터테인먼트 공식 오디션을 통해 그와 한 식구가 됐고, 첫 작품도 함께하게 됐다.

그는 “처음에는 그저 연예인 같은 느낌



이었는데 먼저 손을 내밀어주셔서 ‘봄밤’을 하면서는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았다”라고 친밀감을 표현했다.

임현수에게 자신이 ‘봄밤’ 속 지호와 기석이라면 어떻게 하겠는지, 그리고 이번 주 결말은 어떤지를 물었다. 그는 “내가 기

석이라면 정말 정인을 사랑했는지 다시 한번 고민했을 것 같고, 지호라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동했을 것”이라고 지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엔딩’에 대해서는 “애정자라면 이해가 될 결말”이라고 직접적인 답을 아꼈다. /연합뉴스

“터지는 웃음을 참기란 웃기는 것보다 어려워”

‘플레이어’ 출연 이수근 ... tvN·XtvN 14일 첫 방송



이수근

웃겨야 하지만, 웃으면 출연료가 깎인다는 것이다.

XtvN 신규 예능 ‘플레이어’는 이수근, 김동현, 황제성, 이진호, 이용진, 이이정, 정혁 등 남을 웃기는 데 익숙한 프로 예능인 7명이 웃음을 참고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매주 바뀌는 장소와 상황에서 특정 미션을 해결해야 하는데, 웃음이 터지면 벌칙과 함께 출연료가 일정 금액씩 차감된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퇴마 학교’를 배경으로 한다. 기상천외한 분장을 하고 나타난 출연자들은 각자 서로를 웃기기도 하고, 제작진이 준비한 웃음 트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도 한다.

개그맨 이수근(44)은 9일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개그맨이다 보니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습관이 들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웃음을 참는 건 처음이다. 누구를 웃긴다고 하면 자신이 있는데 웃는 건 참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개그맨들이 주류로 나오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론칭된 건 오랜만”이라며 “만형으로서 시청자들에게 웃음 주는 것만큼은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붉은 달 푸른해’와 ‘와이키키브라더스’ 등 드라마를 마친 뒤 예능에 출연하게 된 배우 이이정(30)은 “드라마가 끝나고 예능 프로그램 몇 개 출연 제안을 받았는데, ‘플레이어’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았고 스스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선택했다”며 “지금까지 촬영한 웬만한 작품보다 애착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연출을 맡은 심우경 PD는 “친한 개그맨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술값 내기로 웃음 참기 게임을 했다. 웃음 참는

게 정말 재밌는 소재였다. 이걸 TV 콘텐츠로 다루면 어떻게 싶어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게 됐다”며 기획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출연료는 각자 다르지만 벌금은 동일하게 매겼다. 누구든 수용할 수 있게 한번 웃을 때마다 1만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했다”고 덧붙였다.

남경모 PD는 “첫 촬영이 끝나고 300만원 정도 모였고, 그 돈은 커피차, 특수장비, 특별 게스트 출연료 등으로 사용했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돈이 점점 모여 스페셜 게스트가 많아지는데 그 또한 관련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14일 오후 6시 15분 XtvN·tvN 동시 첫 방송. /연합뉴스

KBS 다큐 ‘플라스틱 지구’ 후속작 방송

1TV 내일 밤 ... 국내외 플라스틱 쓰레기산 조영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등 여러 굵직한 상을 차지한 KBS 다큐멘터리 ‘플라스틱 지구’의 후속작 두 편이 방송된다.

KBS 1TV는 오는 11일 밤 10시 ‘플라스틱 대한민국 불타는 쓰레기 산’을, 오는 9월 ‘플라스틱 섬을 찾아서’를 각각 방송한다고 9일 소개했다. ‘플라스틱 지구’를 만든 제작진이 다시 뭉쳤다.

‘플라스틱 지구’는 인류생존을 위협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제로 플라스틱 운동’이라는 국내외의 큰 흐름을 취재해 호평받았다.

후속작 1편인 ‘플라스틱 대한민국 불타는 쓰레기 산’은 CNN 보도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된 경북 의성의 불타는 쓰레기산, 필리핀으로 수출했다가 국적에 흡입만 낸 채 되돌아온 재활용 쓰레기 이야기로 시작한다.

한국은 플라스틱 소비량이 2015년 기준 연간 1인 평균 132.7kg으로 미국(97.7kg)을 제치고 세계 1위이다. 온도가 쓰레기 산으로 신음 중인 ‘플라스틱 공화국’의 무분별한 플라스틱 남용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2편 ‘플라스틱 섬을 찾아서’에서는 하



와이와 미국 본토의 중간지대에 한반도 면적 8배 크기로 있는 북태평양 쓰레기 섬을 조망한다.

이 충격적인 존재를 처음 세상에 알린 알갈리타 해양연구재단 찰스 무어 선장과 KBS스페셜 제작진이 동행, 10t짜리 요트를 타고 22일간 항해를 통해 망망대해 위 거대 쓰레기 섬을 국내 최초로 담았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 | KBS1 | KBS2 | MBC | KBC/SBS |
|----|------------------------------------|-------------------------------|--|--|
| 6 | 00 KBS 뉴스광장 |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2부 |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 00 모닝와이드 1~2부 |
| 7 | 50 인간극장 | |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2019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내셔널:아메리칸> | 35 KBC 모닝 730 |
| 8 | 25 아침마당 | 00 KBS 아침 뉴스타임 | | 30 닥터 365 35 수상한 장모 |
| 9 | 30 KBS 뉴스 | 00 여름야 부탁해(재)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 | 10 좋은아침 |
| 10 |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지구촌 뉴스 | |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
| 11 | 00 한국인의 밥상(재) 50 UHD 한식의 마음(재) | 00 단. 하나의 사랑(재) | |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2 스페셜 45 내 친구 요리리 |
| 12 | 00 KBS 뉴스 12 | | 00 12 MBC 뉴스 25 기분 좋은 날 |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시리즈 55 테마스페셜 |
| 1 | 00 KBS네트워크특선 별의별 중계 50 다큐 공감(재) |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 35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5 2시 뉴스 외전 | 55 닥터 365 |
| 2 |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0 전국노래자랑(재) |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 | 00 뉴스브리핑 |
| 3 | |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 25 차종우돌 만국 유랑기 | |
| 4 | 00 사사건건 | 00 그녀들의 여유만만(재) | 2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45 MBC플러스특선 대한외국인 | 00 SBS 스페셜(재) |
| 5 |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 00 파파독 2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 55 오매! 전라도 |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
| 6 | 00 6시 내고향 |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 50 용왕님 보우하사 | 00 백중원의 골목식당(재) |
| 7 | 00 KBS 뉴스 7 40 미니디Q | 50 태양의 계절 | 30 MBC 뉴스데스크 | 00 법률 365 05 생방송 TV블로그 폼지력 |
| 8 |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여름야 부탁해 |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 55 봄밤 |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
| 9 | 00 KBS 뉴스9 | | | |
| 10 | 00 시사토론 '10' 55 오늘밤 김제동 | 00 단. 하나의 사랑 | 05 살맛나는 세상 | 00 절대 그이 |
| 11 | 35 UHD 숲터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 10 썸바이벌 1+1 | 05 라디오스타 1~2부 | 10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
| 12 | 30 KBS 뉴스 40 인간극장 스페셜(재) | 2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TV는 사랑을 싣고(재) | 35 스포츠 다이어리 50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 30 나이트라인 |

| EBS1 | |
|--|---|
| 05:00 왕초보 영어 | 10:50 최고의 요리비결 |
|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 11:20 세계테마기행(재) |
| 06:00 한국기행(재) | 12:00 EBS 정오뉴스 |
| 06:20 세계테마기행(재) | 12:10 EBS 초대석 |
| 07:00 로보카 폴리 | 13:00 지식채널e |
| 07:15 꼬마버스 타요 | 13:10 최고의 요리비결 |
| 07:30 뽀롱뽀롱 뽀로로 | 13:40 질문 있는 특강쇼 - 빅뱅 <초록빛 매혹 스킨댄스, 아일랜드 3부> |
| 07:45 페파 피그 | 14:30 꼬마버스 타요(재) |
| 08:00 땡땡땡 유치원1~2 | 15:00 출동! 파자마 삼총사 |
| 08:30 몬카트 | 15:30 뽀롱뽀롱 뽀로로(재) |
| 08:45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 | 15:45 출동! 슈퍼원스(재) |
| 09:00 마사와 곰 | 16:00 최고! 호기심딱지 시즌4(재) |
| 09:30 원더볼즈 | 16:15 세미와 매직큐브 |
|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페셜 | 16:30 땡땡땡 유치원1~2(재) |
| 10:30 한국기행(재) | 17:00 EBS 뉴스 |
| 17:20 명탐정 피트 | |
| 17:30 페파 피그(재) | |
| 18:00 생방송 토크쇼 보니하니1~5 | |
| 19:00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 |
| 19:30 생방송 판다다 | |
| 20:00 갤럭시 프로젝트 | |
| 20:40 세계테마기행 | |
| 21:30 한국기행 <맛의 방주 3부> <얇은뱅이밀과 팔장, 그 추억의 맛> | |
| 21:50 EBS 다큐프라임 | |
| 22:45 극한직업 | |
| 23:55 EBS 초대석 | |
| 24:50 글로벌 특선다큐 | |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 | 7월 10일(음 6월 8일 戊申) | |
|----------------|---|--------------------|---|
| 子 | 36년생 한 번 정한 약속은 꼭 지켜라. 48년생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60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자료보다는 체험에 의존함이 훨씬 나을 것이다. 8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좋다. 행운의 숫자 : 16, 60 | 午 | 42년생 단순한 착각은 망상을 부르는 법이다. 54년생 시작이 반이 될 것이니 과감한 실행을 요한다. 66년생 실행이 발생하는 전기가 될 것이다. 78년생 제3의 요소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90년생 안타까움을 더하는 원인 요소가 발발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7, 99 |
| 丑 | 37년생 희망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으니 귀를 기울여라. 49년생 대세에 따르지 말고 주체적으로 판단할 일이다. 61년생 참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73년생 실제 상황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85년생 서로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99, 90 | 未 | 43년생 실제로 체험해 보는 것이 이상적이다. 55년생 싫으면 싫다고, 좋으면 좋다고 뜻을 분명히 하라. 67년생 규칙적이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79년생 의심스럽다면 차치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91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의 돌발 상황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8, 27 |
| 寅 | 38년생 낭비가 있을 수다. 50년생 빨리 끊는 물이 쉽게 식는 법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62년생 파문을 일으키는 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74년생 정밀하게 살펴야 파악이 가능하다. 86년생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만 제대로 되어 가리라. 행운의 숫자 : 91, 77 | 申 | 44년생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합리성을 높인다. 56년생 더불어 행하고자 함이 유익하다. 68년생 초심으로써 대한다면 이득을 볼 수 있다. 80년생 회자정리하는 법이니 해묵은 것과 결별해야만 한다. 92년생 전환점에 이르렀으니 슬기롭게 임하자. 행운의 숫자 : 87, 13 |
| 卯 | 39년생 전혀 겁먹을 필요 없다. 51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다. 63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한다. 75년생 상당히 줄어들겠으니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87년생 목적에 부합한다면 문제시할 필요 없다. 행운의 숫자 : 61, 66 | 酉 | 45년생 향후의 실황은 낙관적인 미래이다. 57년생 독창성이 없다면 식상할 뿐이다. 69년생 단일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다. 81년생 반추해 본다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93년생 실익은 있으나 기대해 왔던 바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행운의 숫자 : 81, 57 |
| 辰 | 40년생 경쟁력과 운유책을 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52년생 차이가 보인다. 64년생 절제하지 않는다면 순간적으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76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현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이익이다. 88년생 생 기회의 포착에 소홀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45, 49 | 戌 | 34년생 고생이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라. 46년생 처지와 분수에 맞아야만 유용하리라. 58년생 확실히 변화시켜야만 실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70년생 세밀하게 점검토 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82년생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70, 19 |
| 巳 | 41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할 일을 미루지 말라. 53년생 고통은 미래의 희망을 여는 활력소가 되리라. 65년생 관계 있어서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도 있으니라. 77년생 갈등에서 사로잡히는 고뇌가 보인다. 89년생 모습의 요체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71 | 亥 | 35년생 마음먹은 대로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니 다양한 방책과 대비를 요한다. 47년생 지향하는 기준을 높게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59년생 평온한 가운데 체계적으로 조처하자. 71년생 집착하지 말라. 83년생 중합적이고 계속적인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2, 54 |